

2021 학부모용 카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8가지 오해와 진실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자녀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정신질환을 둘러싼 **오해**와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으로 생기는 병이다?



정신질환(우울증, ADHD 등)은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며, 보호자의 양육에 문제가 있거나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체질환이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지 않듯이 정신질환 역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 기질적 요인, 심리적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정신질환’은 성인에서 흔하다?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 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WHO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약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지, 정서, 행동 문제는 소아청소년에서 흔하고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줍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병원 치료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다?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돕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빠른 회복을 돕는 것처럼 자녀의 인지·정서·행동상에 문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거쳐 향후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되며 의무기록은 10년까지만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입대나 취업시에도 군대나 회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개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

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만 준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처방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가 진료를 통해 치료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단계적
약물치료나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놀이치료, 가족치료, 특수교육,
인지행동치료 등)를 단독 혹은 병행으로 처방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으면 몸(뇌)에 해롭다?



**적절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뇌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여러 단계의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해가 되거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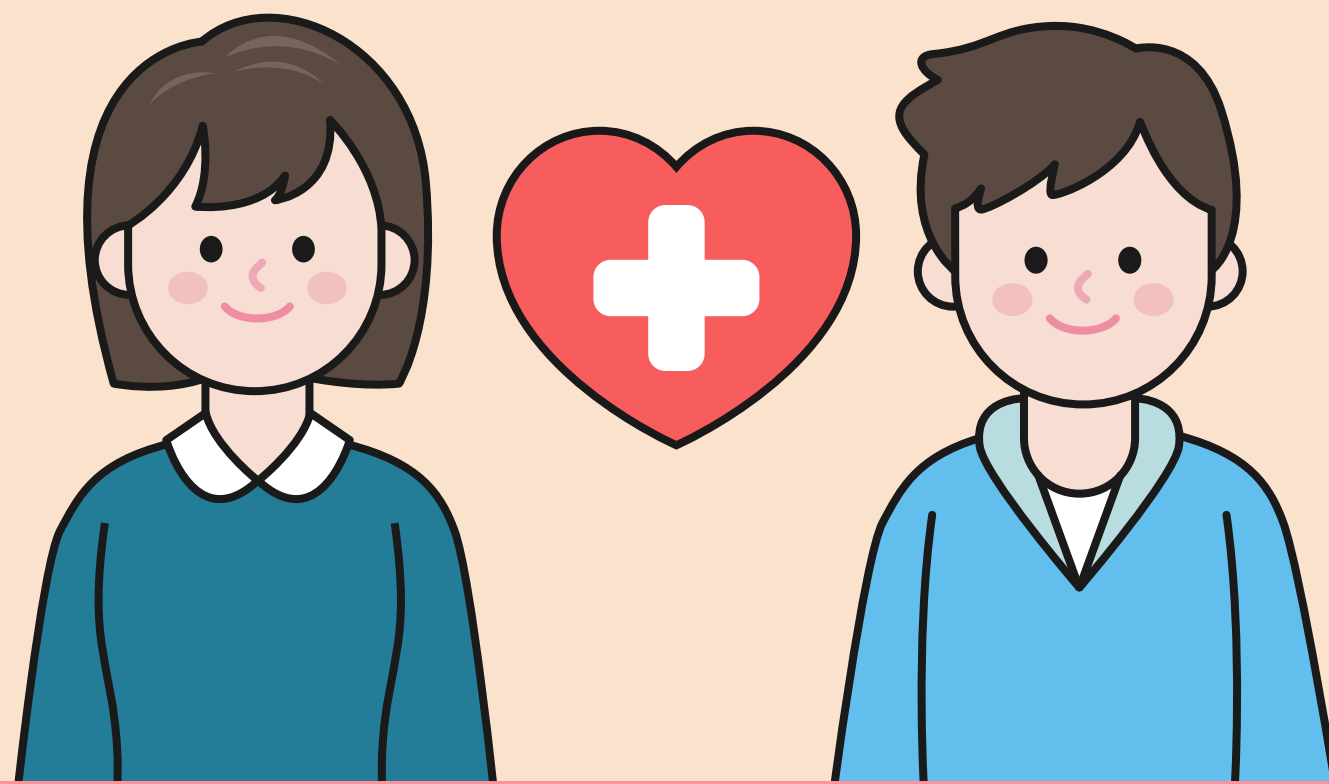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중독된다?



정신질환 치료가 다른 질환보다
비교적 치료 기간이 길어 생긴 **오해입니다.**

약물은 증상이 호전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약물을 감량하여
중단하면 됩니다.

아이가 마음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의 문턱을 넘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카드뉴스 문의사항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02-6959-4640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